

지난 주에 하나님 자녀가 가는 세가지 여정에 관해 말씀을 나누었다. 길이 다르고, 받을 응답이 다르다는 것이다. **세가지 여정이 무엇인가?** 부족하고 상처 가득한 내 인생이 하나님 증거가 되게 만드시겠다는 것이다(증인의 여정). 나를 살려서 세상을 살리고, 나를 치유해서 세상을 치유하시겠다는 것이다(전도자의 여정). 우리가 누릴 생명과 축복은 이 땅에서만 아니다. 영원한 것이다(영원한 여정). 이 축복을 말씀을 통해 약속으로 주셨고,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셨고, 인생의 모든 문제 사건을 통해 체험해보라는 것이다. 이것을 합쳐 “**언약의 여정**”이라고 한다. **이 축복된 여정을 가기 위해서 적어도 세가지만 하지 않도록 언약이 각인되고, 뿌리를 내리고, 체질이 되면 된다.** 각인은 내 생각의 기준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. 언약이 각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만 오면 염려, 불안, 미움, 분노 같은 것이 오는 것이다. 그것이 스트레스를 만들고, 몸 안의 독소와 압도 만든다. 뿌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안 흔들리는 상태이다.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만든다. 흔들리고 불신앙하는 만큼 축복을 다 놓치는 것이다(광야 40년의 이스라엘). 체질이 된다는 말은 앞에서 말한 염려, 불신앙에 속지를 없으니 생각만 하는데도 응답이 되고(엡3:20),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 되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(롬12:1-2). **이 여정을 갈 때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.** 인생을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. 틀린 길을 열심히 가서 멀리 갔다면 그만큼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다(네비게이션이 필요한 이유).

**1. 시간표이다.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인 24, 25, 영원이라는 시간표이다.**

**1) 24는 하나님이 오늘 내게 허락한 시간이다.**

이 시90편을 기록한 모세는 우리 인생이 70년이고, 강건하면 80년이라고 했다. 그러나 돌아보니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한 인생이었고, 그것도 날아가듯이 지나갔다고 했다(10절).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?(모세의 24 집중)

**① 모세는 우리의 날을 계수 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다(12절).**

내 인생의 날을 정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. 나의 날을 허락하신 그 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지혜다. 이것을 놓치면 나의 하루는 의미 없고, 지루하다. 열심히 살았으나 허무한 인생이 된다.

**② 인생 자체가 어렵기에 그 속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기도를 했다(13절)**

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다.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해보라(학업, 직장생활, 사업, 사역)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들이 하는 모든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이다.

**③ 늘 언약하기에 아침에 주의 사랑이 나를 채워 그것이 평생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는 고백을 했다(14절)**

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안 행복하다. 하루를 시작할 때 이 하나님 사랑을 조금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, 기쁨과 용기가 생기고, 할 일이 보인다. 이 하나님의 지혜, 도우심, 사랑이 채워진 상태가 영적 썩밋의 상태이다. 반드시 이 시간을 만들어 누려야 한다.

**2) 25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축복을 누리며 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이다.**

**① 모세의 출생과 성장 과정은 비극이었다. 시대 환경 때문에 강가에 버려졌는데, 그것도 하나님 작품이 되었다.**

강가에 목욕하러 나온 애굽 공주의 눈에 띄어 왕자가 된 것이다. 다른 애굽의 왕자들과 형제 관계가 된 것이다.

**②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배운 모든 학문, 리더쉽 등이 훗날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 훈련이 된 것이다.**

영적 썩밋의 시간을 가지며 하는 모든 공부, 수고와 헌신이 전부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이다. 때로는 억지로 한 일도 하나님은 절대 축복이 되게 만드신다(마27:32, 롬16:13)

**③ 모세가 실패하고 아팠던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했다.**

모세가 괴로웠던 날 수와 어려움을 당한 연수대로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어 기쁘게 하셨다는 것이다(14절) 그것이 노예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을 살리고, 그 복음이 우리까지 와서 우리를 살린 것이다(모세의 237 선교).

**3) 영원은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우리의 후대와 영원한 미래에 계속될 축복을 의미한다.**

주께서 행하는 모든 것이 먼저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영원한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(16절)

**2. 로드맵이다.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목표가 있다. 그것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로드맵이다.**

불신자들도 뭔가 앞서가는 사람, 리더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것이 있다.

**1) 성인식이다. 구약의 이스라엘이었던 유대인들이 이것을 가장 잘 한 것이다.**

**①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는 것이다. 분명히 각자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.**

그것을 못 찾고 사는 것도 문제이나,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자기 것인 줄 알고 사는 것이 더 문제이다.

**② 그것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.**

유대인들이 13세에 성인식을 할 때 말씀을 읽고, 메시지를 하게 하는 이유다. 그들이 세상을 이끄는 성인이다. 말씀 따라가라. 나를 보호하고(시107:20), 지혜도 주고(시119:98-100), 내 길의 빛과 등이 된다(시119:105)

**2) 사명식이다. 내 평생의 미션을 찾는 것이다.**

**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능력으로 채우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? 증인으로 서야 하기 때문이다(행1:8)**

이유를 붙잡은 기도를 하고, 미션을 붙잡은 도전을 하라(불신자 가족들, 친구들, 세상 앞에서)

**② 내가 당한 모든 문제를 상처로 붙잡지 말고, 나 같은 사람 살리는 미션으로 붙잡는 순간 더 이상 문제 아니다.**

하나님이 모세를 광야 40년간 아픔, 절망의 시간으로 보내게 하신 이유가 그것이다. 자기 아픔의 40년으로 400년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을 체휼하게 만든 것이다(출3:7-9)

**③ 램넛트 때 깨달을수록 좋다(요셉, 사무엘, 디모데처럼).**

모세는 비록 80세에 깨달았으나 그 순간부터 120세까지 삶의 시간을 연장해서 미션 감당하게 하셨다(신34:7).

**3) 파송식이다. 하나님이 보내시는 나의 현장이다.**

**① 성경은 20세에 남자를 구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게 하셨다(민1:3, 18).**

램넛트는 내 현장(학교, 직장, 군대)의 영적 군사이다.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사령관이다(사55:4).

**②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를 파송하며 약속하신 보좌의 축복, 시공간 초월의 능력, 빛의 능력을 약속한 것이다.**

우리가 내 현장의 영적 파수꾼으로, 영적 의사로, 그리스도의 대사로의 신분을 붙잡고 나갈 때이다. 한 두 사람만 있어도 된다. 소돔과 고모라에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열 명이 없었다(창18:32).

**결론-**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손으로 행한 모든 일이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(17절). 이것이 오직, 유일성, 재창조의 시스템이다. 우리의 인생이 모태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한다.